

한국쉘석유, 엔진오일 티셔츠 이벤트

한국쉘석유(주)(대표이사 하중환)가 오는 7월14일까지 전국 카센터를 통해 Shell Rimula Super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디젤 엔진오일 Shell Rimula Super를 20리터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능성 고급 티셔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ell Rimula Super 디젤 엔진오일은 미 환경규제 기준을 만족시키는 API CI-4 등급으로 엔진 마모 방지 기능이 우수하며 소음 감소, 출력향상 및 긴 오일교환주기가 특징이다.

또한 유럽형 디젤 엔진을 물론 한국형 엔진에 잘 맞도록 설계돼 벤츠, 스카니아, 만, 볼보 등 대형 고출력 엔진과 현대, 기아, 대우 등 한국형 고출력 엔진, 최첨단 터보 및 슈퍼차저가 장착된 디젤 엔진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쉘석유의 Rimula 시리즈는 1985년 최초로 시판된 이래 트럭, 버스 등 대형차량과 중장비에 사용돼왔으며, 세계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한국쉘석유는 에너지 회사 Royal Dutch Shell의 일원으로 1960년 설립돼 현재 자동차용, 산업유용, 선박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및 그리스 제품을 생산, 판매, 수출하고 있다. <송주연 기자>

<화학저널 2007/06/21>